

### 민주 도당위원장 임기 마무리 앞둔 김성주 의원

## “차기 민주정부 만들지 못해 아쉬워”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18일 전북도의 회 기자실을 찾아 2년간의 도당위원장직의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년의 임기를 마치며 가장 아쉬운 점으로 차기 민주정부를 만들지 못한 점을 꼽았다.

먼저, 김 위원장은 “2년 전 여당의 지위와 다수당을 가지고 출발할 때 전북발전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었다”며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당에 3개의 위원

또, 김 위원장은 “2일이면 들어서 새로운 지도부들에게 여전히 미완의 숙제를 남겨놓고 차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지 못한 회한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했음에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전북의 정치의 힘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러한 지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덕도 특별공영이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측면들이 있어 전북의 현안들과는 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이 1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의 도당위원장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혁신·K뉴딜·참여위 등 만들어 전북발전 총족 노력”  
 “지선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 불구 문제점 드러나” 아쉬워해  
 지방의원 일탈에 “책임의 무게가 하늘과 같은 점 알아야”

회를 제안해 민주당의 새로운 노선 과정을 만들었다”며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 동안 ‘혁신위원회’, ‘K뉴딜위원회’, ‘참여위원회’ 등을 만들어 당을 혁신하고 전북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6.1 지방선거 공천에 관해서 “검증은 철저하게 혁신은 과감하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천을 했으며, 이를 통해 후보들 중 범죄경력 전과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2% 정도 하락했고 공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전과율이 40%에서 20%로 낮춰졌다”며 공천과정의 성과를 강조했다.

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을 거쳐야 하는 것들에 특별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도내 정치인들이 좀 더 분발해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북의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일탈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다”며 “선출자들이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이 도내 의원 전부를 모아 윤리에 관한 강연을 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데에 너무나 아쉽고 선출자들은 그 책임의 무게가

하늘과 같은 점을 알아야 한다”고 일탈을 벌인 선출자들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전주를 공천에 관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거나 “현재 민주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 또한

피해자이다”며 “자신은 민주당이 잘못을 사과하고 후보를 내서 선택을 받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당은 오는 20일 단일을 통해서 주민들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 “국민통합으로 돌아가야”

김진표 “지혜와 용기 있었기에 민주주의 말할 자격 얻어”

18일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대통령님 가신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지났다’며 ‘세월이 흐르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얻었다”고 기렸다.

아울러 “다시 시련이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에 경제와 민생 위기까지 겹쳐져 외환위기를 이겨낸 그날처럼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며 “혈의 정치, 남 탓하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숨을 노린던 적까지 용서하던 정치, 김대중식 국민 통합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은 김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담은 추모 영상과 추모 노래에 이어 추도 예식·현화·조종 및 묵념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복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과 권노갑·한광욱 등고동계 원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했다. /뉴시스

## “DJ 정신·가치, 지금 시기 더욱 절실”

문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맞아  
“모진 역경 속 민주주의 한길 헤쳐 나간 세계적 지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오늘 김대중(전) 대통령님 서거 13주기를 맞아 우리 후대들이 그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 김 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 느덧 13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진 역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화합의 한 길을 꾸준히

게 헤쳐 나간 세계적 지도자였고 늘 서민과 약자 편에 섰으며, IMF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 지도자였다”며 “김 전 대통령님의 정신과 가치는 지금 시기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기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전 대통령님이 이룬, 민주와 민생, 평화와 통합의 길 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인동초 김대중’의 의지를 되새기며, 시련을 겪더라도 역사는 끝내 전진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 “DJ 계승 민주당 미래 여는 선당후사 대표 될 것”

박용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맞아  
“땀땀한, 반칙 없는 민주당의 참모습 되찾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8일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민주당의 미래를 여는 선당후사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

을 올려 “오늘 아침 열린 추도식에서 당의 역사와 함께한 고인의 발자취를 되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DJ의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다”며 “김대중 정신의 근본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이다. 그것



포용국가의 뿌리는 결국 김대중(전)

대통령이 확립한 민주당다움에 있다”며 “김대중의 민심, 노무현의 상식, 문재인 의 포용이 살아 숨 쉬는 정당 민주당다움을 회복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 다시 얻을 수 있다. 폄수가 아닌 정도를 걷는 땀땀한 정치, 반칙과 특권 없는 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민주당의 참모습을 되찾겠다”며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3주기, 그의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l.com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